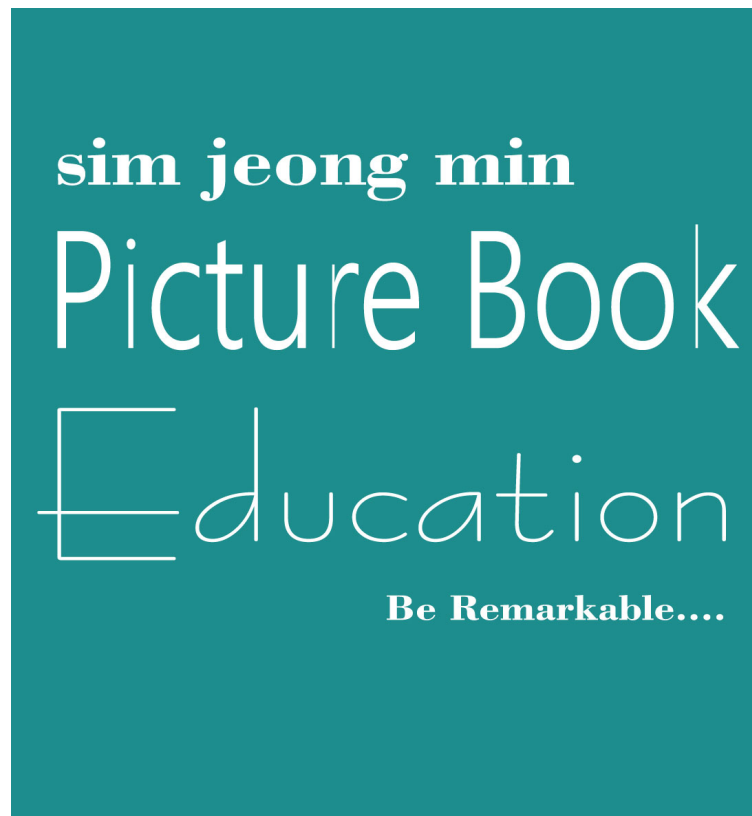


그림책 깊이 읽기의 방법1



자료 출처: [하늘을 나는 그림책] 교육 개발 출판부 20140565

심정민 그림책 교육 연구소

그림책 깊이 읽기가 중요한 때입니다. 그림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을 깊이 있게 제대로 (한권을 보더라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깊이 있게 보는 방법을 엄마들에게 상담 시 말해주세요.

질문1) 아이가 스스로 책 읽는 것을 싫어하고 맨날 읽어달라해요

-엄마가 처음부터 책을 읽어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마가 책을 함께 볼 때 책의 글을 그대로 읽어주었기 때문이다. 책은 아이 스스로 봐야한다. 언제까지 누군가가 읽어줄 수 없다 스스로 볼 수 있어야,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더보고 싶은 부분은 더 보면서 그 이야기의 지식과 상상적인 발상들을 자기것으로 내면화 시켜 자신의 생각으로 발현하게된다.

글을 그대로 읽어주기 전에 항상 표지를 먼저 보고, 표지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이책 안에 어떤 흥미로운 상황들이 펼쳐질지 함께 추측해보고 그 추측적인 발언을 통해 제목도 함께 만들든지 추측해본다. 약 2~3분정도 표지의 그림을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추측하는 시간은 앞으로의 책 내용에 관심을 쏟으며 몰입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된다.

책을 펼친 후 내용을 딱딱하게 읽어주거나 또는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과하게 읽어주는 것이 아니다. 먼저 글의 내용을 읽어주기 전 장면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자유롭게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추측해나가면서 그림속의 숨겨진 것들을 관찰과 탐색 몰입으로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된다. 즉 두뇌는 스스로 움직여야한다.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호기심이나 궁금증도 주지 않고 (표지 바라보기)바로 글을 읽어주면 아이는 집중도가 확실히 떨어지고 내가 순간 재미있다고 느끼는 부분에서만 듣고 그렇지 않으면 딴짓을 한다.

내용을 읽어주기 전 5분정도 자유롭게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추측하듯 자연스럽게 만들어라 그 과정에서 아이는 혼자서 책을 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못보는 이유는 가정에서 계속 내용 그대로의 글을 읽어주었기 때문에 글을 모르고 그 글을 읽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은 책이 재미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림 읽기를 통해 재미를 느끼게 하면 아이들은 자기도 혼자서 책을 재미있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자신감도 생긴다. 아이는 글을 모르고 이해를 못하니 나는 책을 혼자 못 본다라는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림을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아이는 한편의 이야기처럼 말하려고 그림을 보면서[호랑이는 사과를 먹었습니다.]이런식으로 그림읽기를 하기도 한다. 그림을 보면서 다양한 상황과 사물을 언어적으로 표현해내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훈련하게 되며, 이로 인해 스토리텔링능력 및 어휘의 양을 풍부해진다는 것이다.

그림읽기로 내용을 유추해본 후 엄마는 책을 읽어준다. 내용 그대로를 읽어준다. 아이는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맞는지 안맞는지 또는 아까 애매하게 호랑이가 왜 그런표정을 짓고 있지? 라는 궁금증들도 한두개정도는 분명 있다보니 그 내용을 집중해서 듣게 된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의 예고편을 보면서 그 것을 챙겨보고 기다리고 하는 것과 같다.

아이들은 훨씬 집중해서 듣게 되고, 이후에 상호작용으로 내용을 물어본다거나, 독창적인 질문으로 창의적 발언을 유도할 때 아이는 훨씬 잘 말하게 된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책을 안보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학교가 처음에 책을 보는 아이들에게 책을 어떻게 접근 시켰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책을 깊이 있게 보게 하고 스스로 즐길 수 있게 하려면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확실히 우리 아이는 스스로 책을 즐긴다.

질문2) 책을 보면서 말을 너무 안하고 단답형으로 대답해요.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책의 내용에 대해 물어봐도 말을 안한다는 것은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엄마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흥미롭지 못하다.

아님 아이는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개는 같은 말이다. 아이는 흥미가 없고 재미없으니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인간은 즐겁고 기쁘고 내가 쿵닥거리 듯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면 주변에 맞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 아이가 생각을 못해요, 안해요, 너무 단답형 대답을 해요 라는 엄마들의 걱정이 많다.

아이가 무엇이든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이다.

아이가 재미를 느끼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엄마, 아빠가 어릴 적부터 많은 것을 해주고만 들어주었고 아이는 준비된 환경에서 손과 몸만 열심히 움직였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꺼리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이는 스스로 머리를 움직이는 방법을 모른다.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고, 만지고 싶어서 만지는 그런 생각 없이 해야하니까 이미 준비되어서 자기는 뛰어들었고 방법적인 것을 다 가르쳐주고 움직였기 때문에 아이는 그것이 습관처럼 자리를 잡았고 지식은 넣어줘서 많은 것을 알고는 있으나, 결론은 스스로 그걸을 차근차근 꺼내질 못하니 발현능력의 활용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다.

머리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훈련이다. 즉 사고력은 훈련이 필요하다, 10세 이후의 학습을 위해서 10세 이전에 훈련을 해야한다.

아이가 말이 짧고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림을 보는 시간을 가져라. 아이가 8세 이상이라면 그림책으로 하지 말고 정말 명화나 사진, 그림들만 보여줘라, 그림을 보면서 서로의 느낌을 이야기 나누는 것이다.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그림은 딱 정해진 스토리가 없어서 부담없이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책은 이미 글이 있어서 8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글을 먼저 읽으려고 하고 읽고난 후 당연히 생각은 하지 않는다. (훈련이 안되어 있어서.)그래서 그림을 보게 한다. 사실적인 사진도 좋다. 그것을 보다보면 처음에는 별말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활동이 반복되면 아이는 어느새 말을 서서히 많이 많이 하게 된다.

아이가 8세 이전의 아이라면 (5,6,7세) 그림책을 보는 것도 좋다.

글이 없는 그림책을 봐라.

글 없는 그림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비주얼 리터러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교육에는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너 눈으로 보는 것은 마음으로 전달이 되고 그 마음은 생각으로 표현되며 너는 발언을 하게 된다. 의 방식이다.

너가 지금 앞에 펼쳐진 것을 그냥 편하게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것 보이는 것을 말해봐이다.

그것만큼 중요한 교육은 없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 능력과 추측, 비교, 분석, 관찰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